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빅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US Equity Analyst 조민주 mj3346@kiwoom.com



Issue Brief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관세 빅딜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양국 공동 무역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측 발표는 1) 4월 8일, 9일 부과된 추가 관세 철회, 2) 4월 2일 이전에 부과된 관세 항목 유지, 3) 4월 2일 부과된 34% 관세 중 24%는 90일간 유예하고 10%는 유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4월 2일 이전에 부과한 관세 종류는 펜타닐 관련 관세(IEEPA), MFN(최혜국 대우) 관세, Section 232(국가안보 기반 관세) 등이 있다. 이 중 펜타닐 관세는 20%이기에 최종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0%(상호관세) + 20%(펜타닐 관세)인 30% 수준이 된다. 이전 145% 대비 115%p 가 낮아진 것이다. 중국 역시도 기존 125%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115%p 관세를 낮추며 10% 관세만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서로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8월 12일 정도이다. 그 전까지 양국은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 내용을 발표하던 중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국도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협의체 구성”을 진행했고, 펜타닐 및 전구체 차단을 위한 양국의 공동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를 총괄하는 공안부장인 왕샤오홍이 회담에 참석한 만큼 펜타닐 관련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시장의 반응과 수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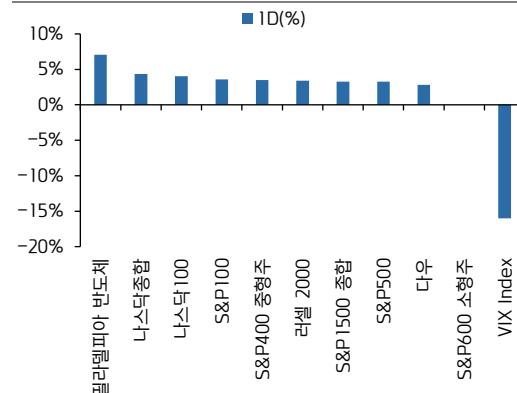
협상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S&P500(+3.3%), 나스닥(+4.4%), SOX(+7.0%) 급등했고, 자유소비재(+5.4%)와 IT(+4.6%)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필수소비재(-0.06%)와 유틸리티(-0.9%) 산업은 부진했다. 이처럼 미·중 장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관세 협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경우 High Beta, 성장주 및 반도체 산업이 유리한 옵션이 될 수 있다. 2018년 12월 당시에도 전술한 팩터 및 산업이 V자 반등 이후 긍정적 수익률을 보였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30% 관세, 사상 최고치인 미국 무역수지 적자 등을 고려할 때 미·중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관세가 반영된 2분기 미국 기업 실적이 발표될 경우 증시는 한차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 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리하다. 서비스 산업인 만큼 관세 저항력을 보이며, 제한적 실적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관세 협상 결렬로 4개월간 이어졌던 상승 랠리가 잠시 흔들렸을 당시, 반도체 대비 소프트웨어 낙폭은 크게 제한적 수준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도출식(formula) – 중국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지수별 1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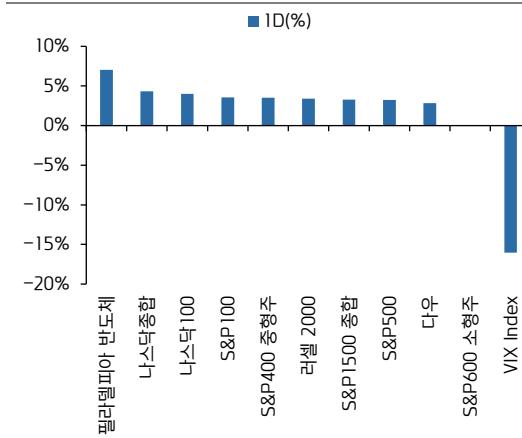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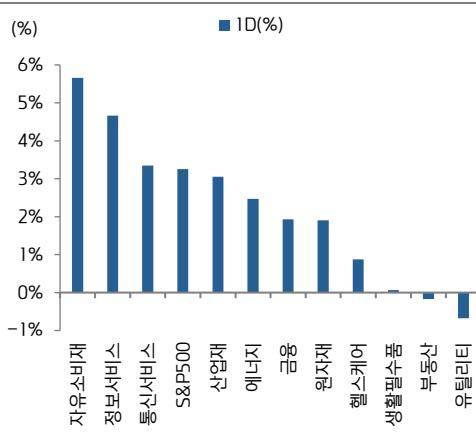
2025년 05월 13일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빅딜

지수별 1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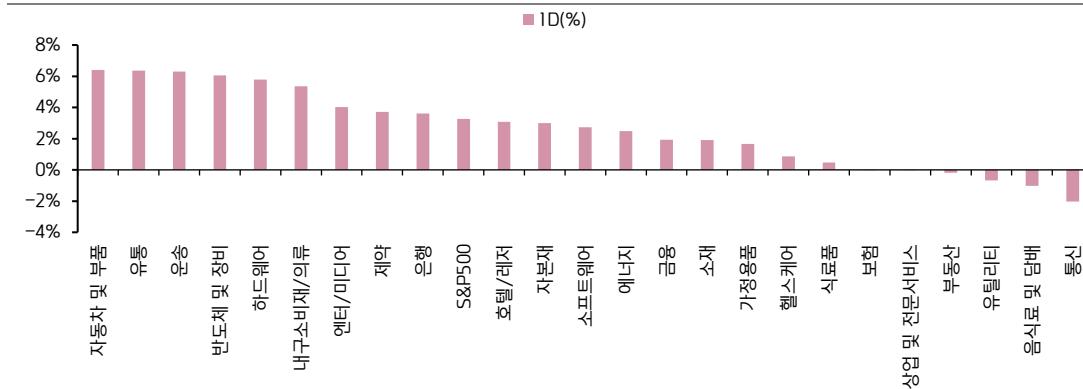


업종별 1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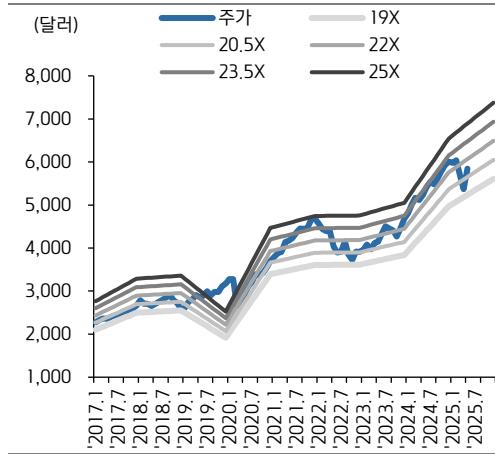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5월 12일 기준

세부 업종별 1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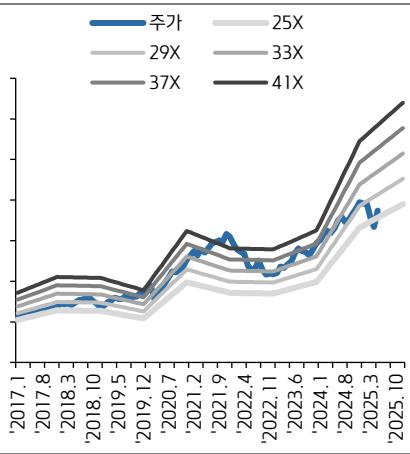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5월 12일 기준

S&P500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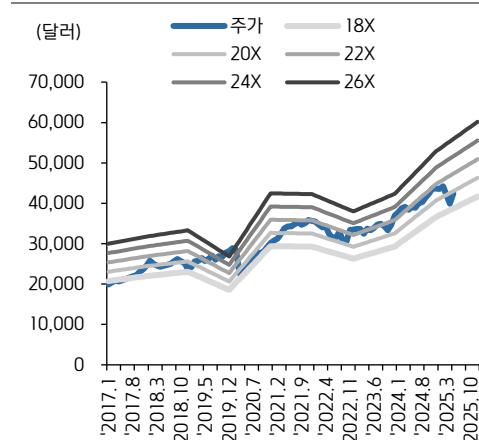


NASDAQ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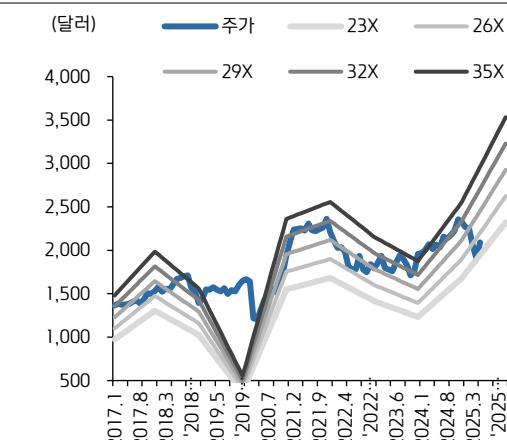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DOW PER 밴드



RUSSELL2000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ID 수익률 High 10 종목

종목	티커	GICS 업종	시가총액	ID 수익률(%)
NRG 에너지	NRG US EQUITY	유틸리티	30,674	26.2%
스탠리 블랙 앤 데커	SWK US EQUITY	공산업	11,221	15.7%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ZBRA US EQUITY	기술	15,262	12.5%
매스코	MAS US EQUITY	자유 소비재	14,589	11.4%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	ODFL US EQUITY	공산업	37,208	11.2%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스	MPWR US EQUITY	기술	33,958	11.2%
퍼스트 솔라	FSLR US EQUITY	에너지	16,753	11.0%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MCHP US EQUITY	기술	32,785	10.2%
J.B. 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JBHT US EQUITY	공산업	14,752	9.7%
카니발	CCL US EQUITY	자유 소비재	28,714	9.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5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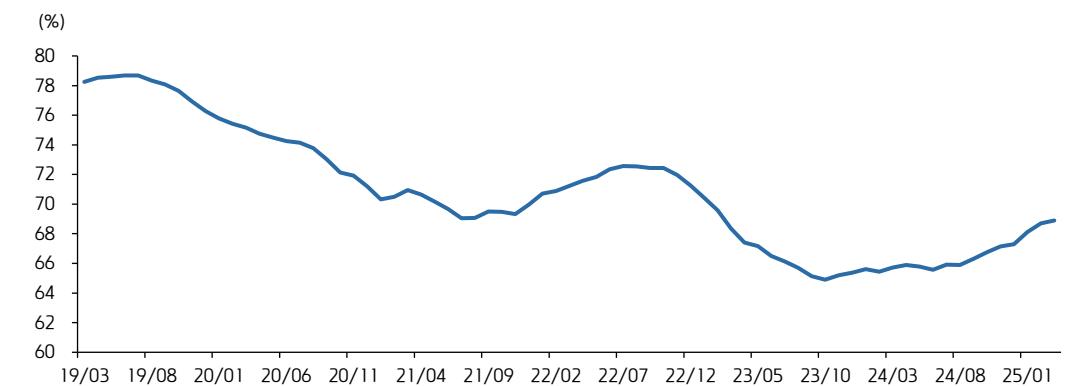
2025년 05월 13일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빅딜

ID 수익률 Low 10 종목

종목	티커	GICS 업종	시가총액	ID 수익률(%)
뉴몬트	NEM US EQUITY	원자재	56,518	-5.9%
아메리칸 워터 웍스	AWK US EQUITY	유틸리티	27,036	-5.6%
마켓액세스 홀딩스	MKTX US EQUITY	금융기관	8,179	-5.6%
인페이즈 에너지	ENPH US EQUITY	에너지	6,290	-5.6%
아메리칸 타워	AMT US EQUITY	부동산	97,335	-5.5%
시그나	CI US EQUITY	헬스케어	84,348	-5.3%
CME 그룹	CME US EQUITY	금융기관	97,466	-4.9%
Cboe 글로벌 마켓츠	CBOE US EQUITY	금융기관	23,154	-4.6%
크라운 캐슬	CCI US EQUITY	부동산	43,755	-4.3%
SBA 커뮤니케이션스	SBAC US EQUITY	부동산	24,67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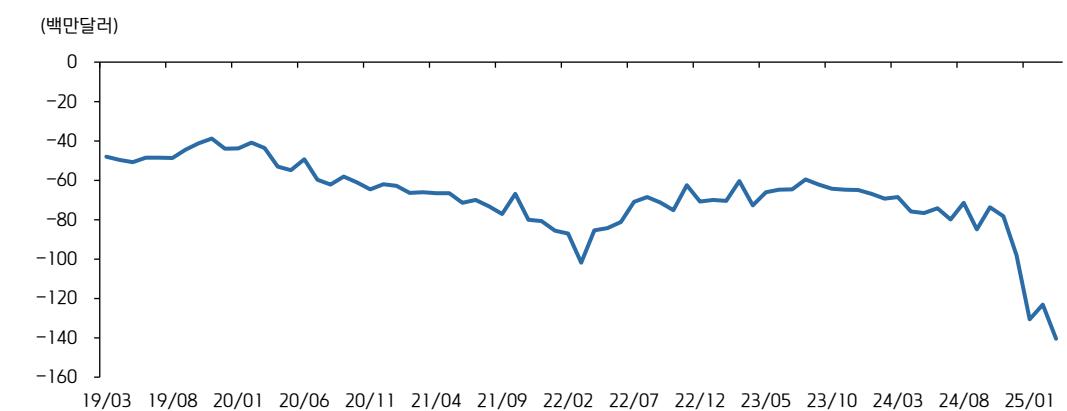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5월 12일 기준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도출식(formula) – 중국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무역적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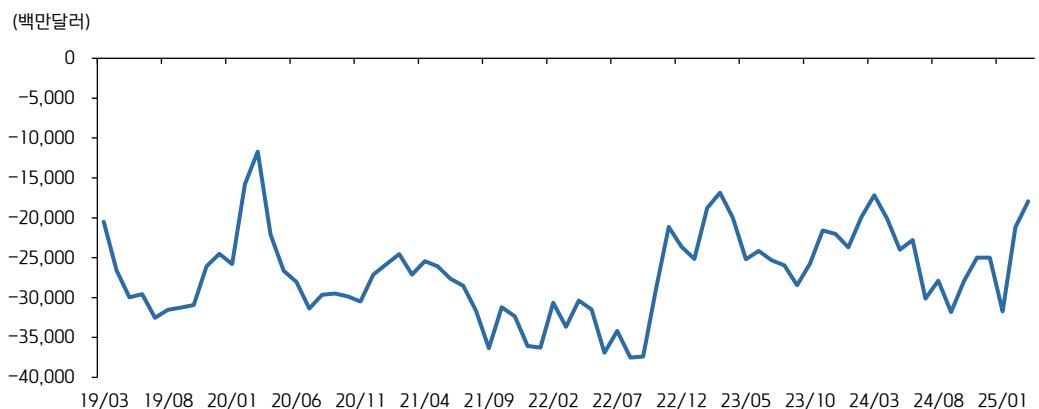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2025년 05월 13일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빅딜

미국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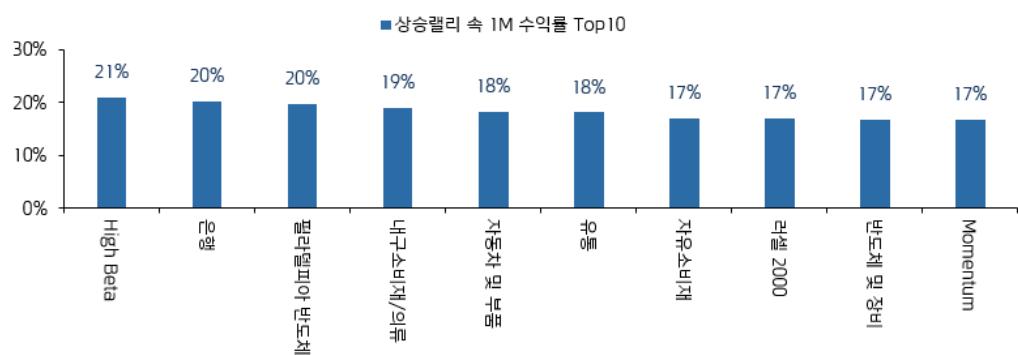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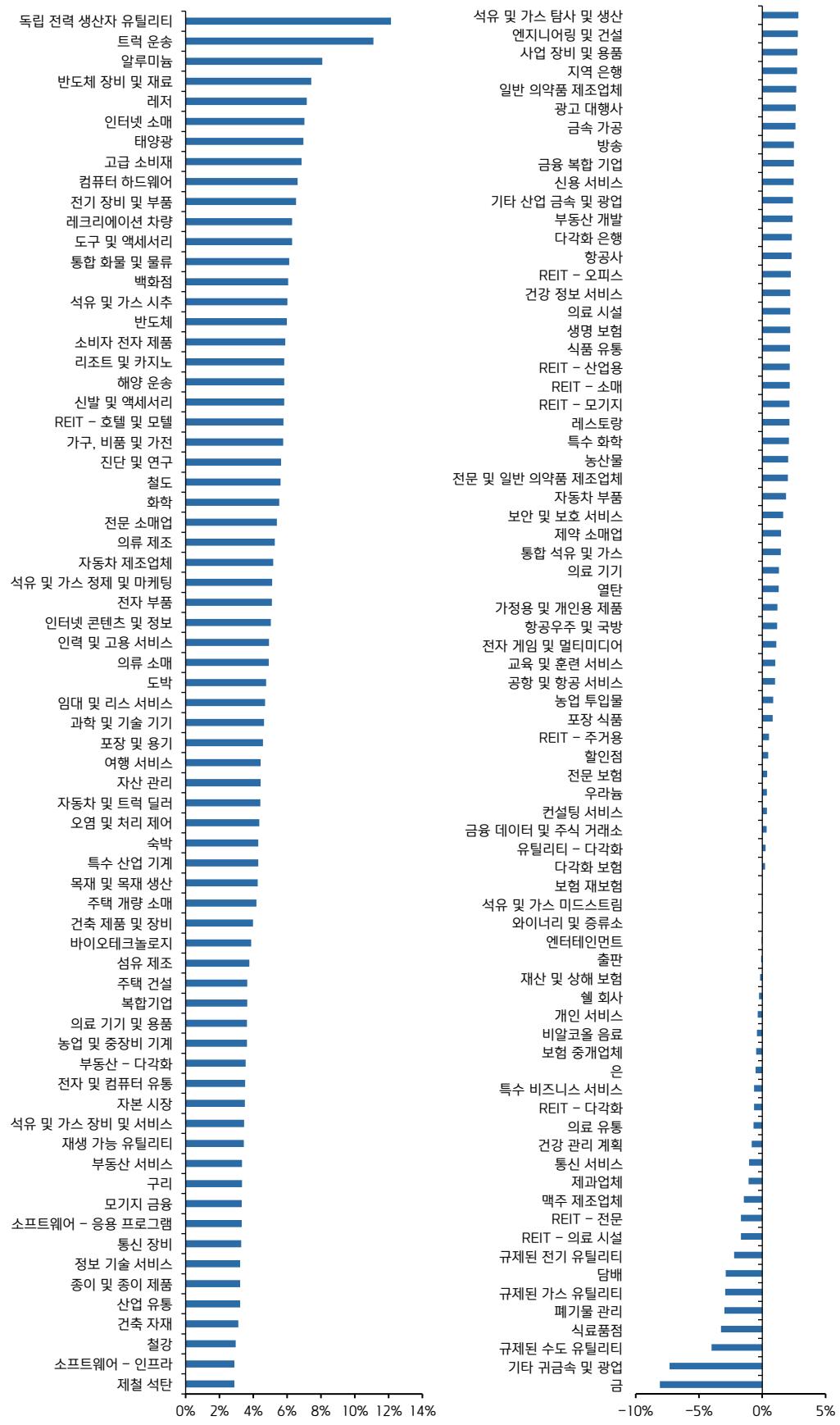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트럼프 1기 관세 노이즈 이후 시작된 증시 상승 랠리 속 업종별 수익률 Top1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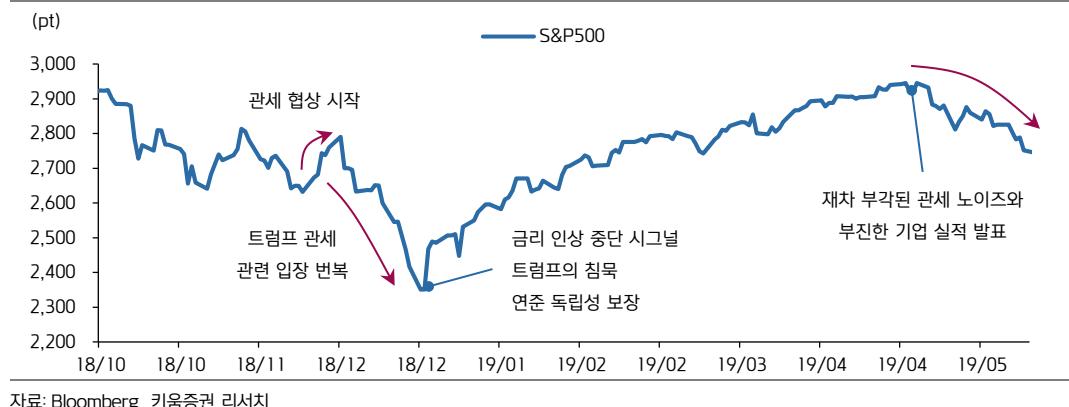
세부 업종별 ID 수익률



자료: FINVIZ,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5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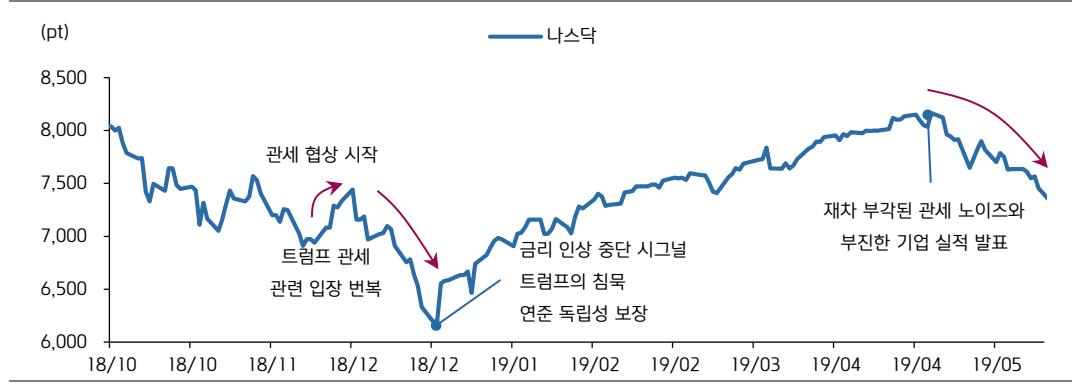
2025년 05월 13일 미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빅딜

2018년 미·중 관세 협정 직후의 미 증시 – S&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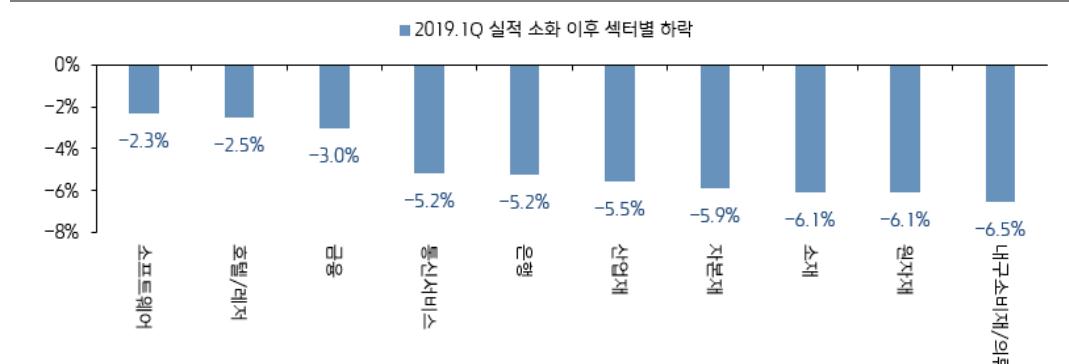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2018년 미·중 관세 협정 직후의 미 증시 – 나스닥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2019년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섹터별 하락폭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